

그리스도를 알고자

말씀 / 빌립보서 3:1-21 (10,11)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목자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한 4대륙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목표지점에 도달하여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뿔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사도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바울은 기뻐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는 죄수였기에 극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보내주는 헌금으로 겨우 기본적인 생활만 하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로마군인들과 족쇄를 같이 하며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현재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에 계신 자비량 선교사님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복음전파역사와 자립역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4월에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시금 재취업해보고자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어느새 50세 중반이 되어 버린 제와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한 분 한 분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존재들을 언급합니다.-첫째로, 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요, 건전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던 자들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이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절대 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인간적인 배경과 출신을 자랑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미혹에 빠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할례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

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 참 할례자는 속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세례를 받고 진정한 할례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사역을 섬깁니다.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능력과 배경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였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4-6). 그에게는 내세울만한 7가지 세상 스펙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생후 8일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바리새파 열혈멤버였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즈음 유행어로 유대인 금수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8절에서 사도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세상 스펙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COVID-19과 같은 전염병, 병충해, 제품의 불순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배설물은 바로 똥이 아닙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왜 사도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어로 “the surpassing greatness (NIV)” 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스펙과 인간적인 배경들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무관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배경, 인간적인 좋은 배경과 학벌은 육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의 스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15).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17:4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위로부터 영생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완성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일체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8-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속에 사도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얻었던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인증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

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창 15:6). 사도바울은 신약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습니까? 10-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고난 당하심 속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힘써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까지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더욱 많이 맛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난을 자처하였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불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선교지였습니다. 그는 유럽을 포함한 복음의 황무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이방땅에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악한 영과 양들 속에 역사하는 죄와 싸울 때 피를 말리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감격적인 사건을 마주하였습니다. 물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그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육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더욱이 선교지 양들이 그를 말로 비방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더욱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금식을 끊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로 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의 심령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지난 25년간의 선교사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의 때에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합니다. 선교지 오스트리아는 저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버릴 수 있는 물질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97년 오스트리아에 학생선교사로 가고자 전공을 재료공학에서 화학공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비엔나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개척하고자 제

2의 도시 그라츠로 갔습니다. 학부과정도 아니고,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바꾸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맨땅에 헤딩하는 듯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시 IMF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물질을 자립하여야 하였습니다. 더욱이 독일어로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초기 저의 독일어는 현지 유치원생 수준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학생선교사 삶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저는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6년간 학생선교사로 학위를 하고, 복음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한국 한 밧데리 연구소를 통해 물질을 주셨습니다. 2003년에 기적적으로 그라츠 공대에서 화학공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주지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전 가족이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과 양 다니엘 선교사 가정은 2006년에 비엔나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금이 없어 한국 형님에게서 돈을 빌려 이사하였습니다. 마땅한 자립자리나 자립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고난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양들을 섬기러 왔지만 저의 모습은 외국인 실업자였습니다. 구호단체에서 주는 생활물품이나 정부보조금을 찾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을 때 독일 쾰른의 한 선교사를 통해 비엔나 소재 엘지전자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 공학연구소에서 전공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4월에 오스트리아 현지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실직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직의 고난을 통해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부당하고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시간 개인기도를 마치고, 한 사라 선교사와 일용할 양식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소감을 써서 발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작년 한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대기근에 누렸던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창 26:1-13). 3월초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소재한 유럽최고의 자동차 설계업체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4월 21일에 job interview를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출신이요, 50대 중반인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실직은 저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일자리를 얻고 물질자립하는 것이 큰 고난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물질자립을 하며 복음전파와 제자양성역사를 섬기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껏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자립을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을 통해 물질자립의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하루 하루 물질자립의 부담감으로 잠을 설치시고,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지요? 그러나 물질 자립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물질 자립 말고도 우리는 핍박과 질병과 무시와 상처 등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고난을 거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2-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합니다.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합니다. 그의 꾀대는 유럽의 끝이요, 당시의 세상의 끝이었던 스페인 개척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양들을 얻어 그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꾀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꾀대를 바라보며 목자 생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은 영생의 면류관이며,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딤후 4:8). 그리스도를 알고자 달려가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생활의 꾀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하늘 시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엔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21).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본문말씀을 통해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목표로 이방 땅에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꾀대 되신 예수님을 쫓아 잘 달려, 결승지점에 도착하여,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힘써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도착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갖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목자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목표지점까지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